



話 부모님의 말씀이니듯는

아희와개고리

동경 박 장 순

『네년에 었던시골 한가한촌에 늙은부부의 두
내외가 살드랍니다。그런데 그부부는 일구힘십
으로 아들하나 낳키를 원지심명의재 비뻔을나
다。그러다가 옥동자를 귀남자를 하나보게되었
습니다。장독에나 늦재난의아들이라 금이나 옥
이나 하면서 꿈계꿈계 길냈습니다。
세월이 썩르기는 흐르는 물결과갓고 사람이

크기는 바람결 가흔지라 그아희는 별서 심어
세가 넘세되었읍니다。그래서 잔심부름 가흔것
은 열려엄시 식힐나히가 되었읍니다。아모리
귀한 아들이지마는 다큰것을 가만히 방에 안
쳐두고 밥만 먹일수는 업는일이닛가 그부모님
은 잔심부름을 떠러식힙니다。그러나 이아희는
부모님의 귀영속에서 자라난아희가 되어서 어
리광만 피우고 이기짱을 잘칩니다。동으로가타
런 서쪽으로다타나고 좌편으로 가타면 우편으
로 타라나나다。올래를 들것가드면 아래와갓속
니다。

『에- 불죽 썩오련。』
『네- 불이요。』

하고 불을가지고읍니다。부모님이 성이나서「이
년석아 잘가지고 오락는때 왜불을가지고오너」
하면「불이나 불이나 올은일반이지요」합니다。
이와가치하여서 무슨말이든지 이죽이죽하면서 어
기짱만치고 이르는말을 도모지 뜻지를안습니다
부모님도 이르다이드못하여 짓쳐서 저것은 나
의자식이아니라 원수로 태어난재라하고 아주불나

있읍니다。그래서 부모자식기간에 아주원수처럼
지내왔읍니다。

二

그러다가 무상한것은 인생이요 못된것은 죽
습이라 그아희의부모님은 몸솔병이 불너서 한
씨변에 이세상을 썩나지 아니할수가업사되었습
니다。그러나 그부모님이 율령을마치게됨에 이
로써서 생각하기를 내가 한일 이대로 죽어서
조치못한쌍에 부치게되면 저자식의자손으로 하
야공 절절 못된것만 나케되리라 생각하고 죽
어서는 아못조록 명망하의 무치어서 자식으로
화야공 잘되기를 생각하였읍니다。그러나 그아
들이 원청장 어긋자를 잘노코 부모의말을 아
니듯는지라 바쁜대로 말올해서는 그아들이 말
올 들이올것자도안습니다。그래서 빙가는말을
하야가지고 조흔명망에 부치리라하고 생각하였
읍니다。

『에- 니마야 아모리생각하여도 내가 죽겟
다。상자리가 귀승승하고 사나운것을본후도

모지 사타날것자지 아니하다。나는죽는사람이
다。네나 아못조록 어진사람이되기불바란다。
그런데 내재할말이하나있다。우리두부부가죽거
든 양지죽고 사태아나고 락조흔 명망유망
에 무를생각을말고 사태나기쉽고 풀나가기쉬
운 산비라리나죽한개을엿해 무더주기를바란다
이것만은 나의소원이니 부되있지말고 그러케
하야다구』
하고 술을지우고마랐읍니다。아모리도척가흔 사
람이라도 부모가도타가서계되면 을지아니하는 사
람이업고 참회아니하는 사람이업는법입니다。살
인 감도 절도 방화를 범한 세상에 용납할수
업는 죄인이라도 세상을 원망하고 갑속속해잇
다가 부모가 도라갓다는 말올들으면 방성용곡
을 한다고합니다。이마음이곳 부러님의마음이요
어진마음이겠지요。

三

부모님의 사타계실씨는 그러케 어깃장안치고
말을 아니듯는 그아희도 비로서 불성(佛性)이

나라나고 양심이 빚취게 되어서 두다리를 세치고 방성종곡을 하였습니다. 한이동풍토고 목이 쉬도록 우려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정신을 차려가지고 부모님이 이르른말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말을생각하여온즉 그와가치 인사는 쌍에다가 장사를 지내서는 조처못할것 같습니다. 누가생각하드래도 그리겠지요. 그리치만 다시한번생각하여온즉 부모님이 그처럼 부학한것을 아나드러서는 자식의도리가 아닌것까지 생각됩니다. 특히유으로 감겼습니다. 그래서 『오냐 부모님의 마추마부학이나드러되리자. 사타게실때에 그리케도 말을뜻지아니했는데 도라가실때에 마추마으로 하신말을뜻지 아니드러서야 인세이라 고 할수있다』 하고 부모님의말과가치 산비말지고 불로르르고 추추한 인사는뜻을 가려서 부모님의 장사를 지내드리고 마랐습니다.

四

그아회는 부모님의 말과아나드르되르 일마살지못하다가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저승세사의

게 붓를내서 염나대왕앞으로 갔습니다. 좌우에 위엄스럼게 무성계 광찬 체사가느리스고관서마흔 판사감사가후이가드러서있는데그한가운데 염라대왕이 수염을 거스리고 위풍이 담담하게안저있었습니다. 보기만하여도 잊지부서운지 치어다볼수가 없습니다. 무슨진대왕이 나코하드니 『저-백성은부모의말을아나드르백성이나빳비 무간지옥으로 보내라』 하는염라대왕의말이 들립니다. 그아회는 몸이떨립니다. 두팔뚝하고 무간지옥으로 감겼습니다. 그러나 무간지옥을 감겼거든면 여간해서는 다시나올것까지를 안습니다. 그래서 죽을용귀를 내어가지고 『소인이 죽을죄를 지어가지고 이곳을 드러왔는지마 무간지옥보다 더한곳이라도 가겠읍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사타게실때에는 말을아나드렸스나 도라가실때에 한마의하신말은은 깨끗고 그대로하야드리고 왔습니다. 그것만오르라도 좀 죄를 가볍게해서 다른곳으로 보내주소서』 하였습니다. 그리한즉 염라대왕은성을 버려내며 하시는 말씀이

『저백성 드려보아라 네가그리케 네부모의말을아나못고 어깃장만 치기때문에 너의부모가 죽어서 평당옥당에 무치고 심히도 그리말하면 네가쓰어깃장을노코 못된곳에다가 무를가하여 그것케일론것이다. 그런데 너가듣것도 인세이라고 사람의마음으로 돌리키게되여서 부모의말을 바로못는다는것이 그할로 못된곳에 무치게되여서 비만오면 너의부모시체가 시각으로 써나러가게되였다. 그리함으로 너는바른대로 한것도 죄가되였느니라.』 합니다.

이말을 들은 그아회는 눈물이비오듯하였습니다. 그랬서있디케하든지 인간에 나와가지고 부모를써나러가지아니하도록하기로 결심하고 염라대왕세에걸부경하였읍니다. 그리한즉 염라대왕도 추은하게 되었고

『저-백성은 무간지옥으로 보낼것이나 정상이축은하니 개교리 성대기를 써워서 다시사바세계 인간으로 보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아회는 삼우뚝 개교리가 되어가지고 인간(人間)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五

그래서 그아회가 나와가지고 온즉 염라대왕님의말과가치 비만오면 부모가 못써나러갈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날만호리면 근심이되고 비만오면 더걱정이되여서 목숨이 연이지도록 올면서 부모님이 무친곳으로 왔다갔다하며 근심을 하고 올기만하게되였습니다.

독자여러분 개교리가 비가오시면 개울개울하고 유는출처를 아심닛가 부모님의 말씀아니듯은 아회가 그리케 개교리가 되였기때문에 비만오시면 저-개울보라고 개울개울하고 유는것입니다. 개울(川)은 방언을 써라서 개울이라고하는때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개골이가 개울개울하고 유다는곳도있고 개골개골하고유다는곳도 있습니다. 불교소년회원되신여러분은 아뚝조록 부모님말 상을잘드롭시다. 싯다잘못하다가 개골이가되리다 (完)